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집시다!

스님노후복지

“늙은 것이 서럽다. 나이 들면 내 심정 알 것이야.” 취재 현장에서 만난 한 노스님의 자조 섞인 말이다. 이유는 문중도, 사제도, 돈도 없기 때문이란 것이다. 스님은 “이 가운데 험가지라도 갖춰졌다면 이런 생활은 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평생 수행에만 전념해 온 스님들은 노후에 의탁할 곳이 없다. 건강이라도 좋으면 ‘빚방’이라도 거처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난감해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스님들은 몸이 아파도,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선뜻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불교 스님노후복지 현주소다. 이러한 사실은 사부대중이 모두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승려노후복지의 수준은 지난해 조계종 교육원이 본말사주지연수회에 참석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노후 보장돼야 한다고 잘 나타나고 있다. 본말사 주지스님들이 종단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것이 ‘승려노후복지대책(27.3%)’이다.

스님들의 노후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수행과 포교라는 본분사에도 지장을 준다는 것이 많은 스님들의 토로다. 수행과 포교보다는 노후가 걱정돼 스스로 노후대책을 위한 재정 및 거처 마련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주지직분과 상보 정재의 사유화 문제 등도 보장되지 않는 노후복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압도적이다.

모법적인 노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종단은 진각종이다. 진각종은 65세이상 노스님들을 위한 기로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조계종과 몇몇 종단은 사찰단위에서 노스님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뿐 대체적으로 열악한 상태다.

스님들의 노후복지 정착을 위해서는 종단차원의 제도적 정착이 선행돼야 한다. 복지전문가들은 법인설립을 비롯 양로원, 의료공제회 등 노후복지제도 정착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김종근 기자(gamja@buddhapia.com)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 http://news.buddhapia.com
 부다피아갤러리 http://gallery.buddhapia.com
 부다피아쇼핑몰 http://mall.buddhapia.co.kr

장기기증 - 화장서약 방생실천

도선사 '생명대법회' 2천대중 동참
 장기기증 30명·사후 화장 67명 서약
 생명나눔회·현대불교신문사 공동주최

불교 전통 장례의식인 화장 문화의 정착과 장기기증 활성화 위한 실천대법회가 교계 처음으로 열렸다.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수덕사 주지)와 본지가 주최하고 도선사(주지 동광)가 주관한 '입훈맞이 불공 및 생명나눔 실천대법회'가 4일 서울 우이동 도선사에서 2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됐다.

생명나눔실천회와 현대불교신문이 11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살을 나눔시다, 생명을 나눔시다' 캠페인의 첫 번째 행사인 이번 법회에는 사후 장기기증 등 장기기증 희망 서약자 30명, 나는 사후에 화장하기를 원합니다' 서약자 6백78명이 동참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

그동안 입훈대 개인의 기복에 치우친 입훈기도나 신림법회를 벌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법회는 방생도량 도선사에서 방생실천의 참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로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았다. 특히 화장은 불교의 전통 장례의식이지만 많은 불자들이 이를 꺼려온 은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불자들의 의식각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4일 입훈을 맞아 도선사에서 열린 '생명나눔실천대법회' 참가자들이 사후 장기기증과 화장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고은배 기자(ybgo@buddhapia.com)

파계사 영산유원 '비구계본' 특강연다
 3월 25~30일

구계제를 받은 비구들이 지켜야 할 계율인 250계를 묶은 '비구계본' 특강이 파계사 영산유원에서 열린다.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이 특강에는 이미 정인 20명의 정반인 10여명이 접수를 마쳐 계율에 대한 승단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산유원장 철우스님이 비구

'비구계본' 특강은 지난 95년 2월 곡성 태안사에서 종전스님(해인사유원장)이 4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4년만에 열리는 강좌다.

영산유원은 연중 1회씩 실시하는 이 강좌에 대한 반응이 좋을 경우 강좌 회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yylim@buddhapia.com)

불교정보망 달마넷 4월 가동
 조계종 전산화 발표...올 5백사찰 홈페이지 제작

불교종합정보망 '달마넷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조계종은 2일 관련 업체인 데이콤, 이현데이터 시스템 등과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조계종은 각종 불교관련 자료를, 데이콤은 달마넷 프로젝트 추진 비용(10억)을, 이현데이터시스템은 정보구축과 운영을 담당키로 하며 실무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조계종은 올 4월 달마넷 정보서비스를 시작해 금년말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의 폭을 넓혀 갈 방침이다.

조계종은 5일 총무원장 고산스님과 교육원장 일연, 포교원장 정연스님을 비롯 중앙종무기관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종무행정 표준화 및 전산화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조계종은 설명회에서 "금년 내로 5백여 사찰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본말사간 행정의 온라인화 등 정보화 사업에 전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용중인 종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와 기술적 보장을 꾸준히 하며 5월에는 부처님오신날 특별 서비스 프로그램도 선보일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창작국악교성곡 '혜초'

2월은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혜초스님의 달'입니다. 신라의 대표적인 구법승으로 중국명교의 정통 맥을 이은 혜초스님(704~787)은 세계에 알려진 인물이지만 그 동안 스님의 구법행적과 사상이 구체적으로 조명되지 못해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2월 혜초스님의 달을 맞아 본사는 한국 최대의 대표적인 일교종단 진각종과 공동주최로 오천곡을 여 행하면서 부처님의 자취와 그곳의 역사 풍물 등을 기록으로 남긴 위대한 한국인 혜초스님의 발길을 창작 국악교성곡으로 찾아나섭니다. 시인 장지현경사의 가사에 붙은 작곡가 김희경씨가 작곡한 국악교성곡 '혜초'는 불교계 연합합창단 250명과 남성합창단 30명, 중앙국악관현악단이 참여하는 감동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관련기사 7면>

혜초스님 구법의 생애 그린 감동의 무대
 27일 오후7시 국립중앙극장 대극장

△일시: 2월 27일 오후 7시(1회 공연)
 △장소: 서울 국립중앙극장 대극장
 △출연: 청룡사 불광사 김상사 묘각사 조계사 청년회 인현보영사 중앙불교, 진각 합창단, 수원포교당 합창단, 중앙대 남성합창단 중앙국악관현악단 유승영씨(성악안혜초 오카리나 연주)
 △공연·예매 문의: 진각종 문화부 (02)913-0753 현대불교 편집국 (02)722-4162

주최: 대한불교 진각종·현대불교신문사
 후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btn·BBS 문화관광부·한국문화예술진흥원

생명의 신비의 玉

天然의 健康寶石 岫岩玉 (수암옥)

건강과 행운을 가까이에 수암옥의 신비로움과 고귀함을 느껴보세요.

옥 염주 세트 (가격: 98,000)

천연옥 마사지 벨 (가격: 49,000)
 만옥 팔찌 세트 (가격: 49,000)
 옥 바둑돌 (가격: 295,000)
 수라옥 다리 (가격: 158,000)
 수라옥 반상기 (가격: 188,000)

수암옥의 특징

- 세계적 유명옥은 곤산옥(신강성), 초산옥(호복, 상상), 수암옥(요령성)이 대표적이데 그중 수암 옥을 2300여년 전부터 내려와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한나라 이전부터 그 진가가 알려져 세계 최고의 옥으로 군림하고 있다. 특히 현재 불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벽옥구패'가 수암옥으로 판명되고 있다.
- 고려사 보우스님편을 참조하면 명나라 황제가 말 노국공주를 고려 공민왕에게 시집보내며 제일 귀중한 예물로 수암연옥으로 만든 옥대를 만들어 보내며 공민왕의 장수를 빌었다는 기록이 있다.

▲ 옥반지 미학술 ▲ 옥반지 학문
 으뜸의 손사건은 연옥 사용인 미홍주(고분자 연구실 55대) 연옥의 손사건은 연옥을 사용하지 않은 손, 김포 (30대) 연옥자이에도 불구하고 건강상태가 현저한 차이 를 시점으로 볼 수 있다.

● 제조인: (주)한일 의외기
 ● 주문: 02-732-1522 / 737-8881